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KapSook Yoon (Kwonsa)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Genesis 1:26-31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Human as Image of God" (2)
* Hymn	213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Human as Image of God” (2)

According to Genesis 1, human beings are the highlight of God's creation. What distinguishes humans from all creation is that they have been created in God's own image (vv.26-27). This concept of divine image is theologically known as imago Dei, which is generally understood in 3 ways: (1) substantial/structural, (2) relational, and (3) functional. According to the substantial or structural view, humans are intrinsically rational, emotional, spiritual, moral, and creative, like God. According to the relational view, humans are primarily relational in nature ("male and female" - v.27), like the Triune God ("let us" - v.26). According to the functional view, humans are representative agents of God to rule and care for the whole earth ("subdue ... rule over" - v.28). Thus, humans are created with inner capacities (rational, emotional, spiritual, moral, creative) to function as imago Dei in proper relation to God, fellow humans, and nature. However, due to sin and fall of humanity, the concept of imago Dei cannot be understood apart from redemption in Christ. In other words, the ultimate sense of imago Dei can only be found in Christ. It is Christ, then, who is the true imago Dei who came to redeem and restore humanity's original imago Dei. It is Christ who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 born over all creation" (Col.1:15). It is Christ who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Heb.1:3). "And we all, who with unveiled faces contemplate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image with ever-increasing glory, which comes the Lord, who is the Spirit" (2Cor.3:18). In this sense of transformation into Christ-likeness, we can say that we, the redeemed, are called to bear the image of Christ (imago Christi).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Rom.8:29).

Announcements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continue to pray for you.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9:30 am (Room 104) - Spiritual Disciplines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1:30 pm (Outdoor Cafe) - Youth Bible Study (led by Brother Jimmy Eppley)

1:30 pm (Room 902) - Young Adult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1:00 pm (Room 601) - Adult Bible Study (led by Brother Ranjan)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603 호
유년부	오전 9시	701 호	예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년 1부	오전 10시	본 당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장년 2부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2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2부	오후 2시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재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심진희 정대은 장재원	협동목사 김철홍 김다미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분혜 이진광 고수는 Vung Zam Cing,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현나, 김모세이하나, 김원호동아시야, 전광혜(서아시야), 이은준강혜정, 박켓산,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리요, 조남혜, 방광라(세), 이재을박병진(칸반다야),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화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누(인도), 정상진홍성인(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행영(러시아), 김인사현해옥(아르헨티나), 황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헝가리), 김나형·오정녀(캐나다), 김종일(멕시코), 허규아(말라위), 신 코 카, 마이, 랄 사무엘, 레이, 난, 쌍 싹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본,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식 이경섭 알로르 비사루보도 보디소뜨 린쯔 수만쥘(말라위), 김태식 윤영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탁수(군산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중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 시 42:1-11

시편에 고라 자손들이 쓴 7편의 시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부끄러움과 불명예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다시 생명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그들이 쓴 시들에 깊이 묻어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는 것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하며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의 낙담되고 두려운 일을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와 같은 갈급함, 간절함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의 유익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막대한 인맥, 혹은 남들보다 잘 나가는 자식들 아니면 자신의 젊음과 지식과 능력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변하며, 가끔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변하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영원하시며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은 분명히 이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일컬어 manifestation of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흥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 앞에 섰던 기드온과 고작 300명에게 그리고 파공으로 인해 배가 뒤집힐 것 같던 순간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분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험한 때 그 어려운 때 그 절박한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여러분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는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한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 우리의 찬양 -> 하나님의 깊은 임재'라는 거룩하고 복된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큰 도움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욱 깊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어 거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